

## 삶의 2모작, 평생교육을 위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학습하는 삶, 평생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형식적·비형식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말로써, 방대한 영역만큼이나 교육의 형태와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해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현재 전 세계 26개국 175개 도시가 "교육도시" 건설을 천명하면서 국제적 연합체를 형성하는 등 평생교육 확대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양질의 인적자원 개발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비율은 23%로 OECD 최하 수준이다.

그러면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이토록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라 할 수 있다. 기술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昨天的 유망 산업이 내일의 사장 산업이 될 수 있고, 전통적 생산방식에 익숙한 노동자는 신기술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된다. 기업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품과 생산 기술 및 경영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식의 창출을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의 지속적인 학습과 교육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은 정보와 지식의 빠른 변화뿐만 아니라 그 양도 방대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학습노력 없이는 생산 및 경제활동 등 사회생활은 물론 육아와 자녀교육 등 가정생활도 만만치가 않다. 정보와 지식의 격차로 세대 간 소통에 장애가 발생하고, 더구나 취약계층은 생산적인 사회활동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자기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될 수밖에 없는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야 할까?

첫째, 생애의 일정기간에만 허용되는 정규교육의 학습경로를 평생교육에 개방하고 다원화해야 한다. 특히, 대학은 고등학교 졸업 즉시 입학하는 교육기관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생애의 어느 시기라도 진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성인의 대학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입학 특전과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폐쇄적이고 단선적인 학습경로 때문에 35세 이상 성인의 대학 재학률이 3%로 미국 16%, 영국 22%, 뉴질랜드 24% 등과 달리 OECD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둘째, 지역 내 정규교육, 전문 직업훈련, 공·사립의 사회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연계, 협력 및 보완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평생교육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훈련 매체들이 지닌 자원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호 역할 분담과 보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에 충남도는 2008년도에 "충남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고, 현재 충남도의회, 충남도교육위원회,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충청남도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아산시 등 7개의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평생학습 道'를 건설해 나가고 있다.

끝으로 평생교육의 실용성을 높여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우선해야 한다. 평생교육은 단순히 여가 활용이나 취미생활을 가르치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육아와 자녀교육, 가사 및 미교육 이수, 재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교육 프로그램 양산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에 보다 힘써야 한다.

'배워야 사는 시대', 배움과 학습을 통한 제2, 제3의 전성기는 자신의 경쟁력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 평생교육을 생활화하는 데 실천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때이다

[충청투데이 8월 7일자 20면]